

### 사무엘상 3.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죄 (삼상 2 장 12-36 절)

#### 들어가기

사무엘상 2 장의 첫 부분에는 1 장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 저자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삼손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40 년 동안 백성을 이끌었던 사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불경건하고, 형식적인 신앙인들로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 임무를 맡아보면서도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일을 도우면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나는 사무엘과 불경건한 엘리의 아들들을 의도적으로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의 가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선택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1.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12-17 절)

##### 1)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12 절)

- ‘행실이 나빠’ = 원어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사악한 자들’, ‘쓸모 없는 자들’, ‘무가치한 존재’, ‘불량배들’ 이라는 말
- 그런데 저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

##### 2) 그럼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죄는 무엇일까? (13-17 절)

① 자신들에게 할당된 분량 이상의 제물을 취하였습니다.

☆ 율법에 따르면 제물 중에 제사장 몫은 부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 레위기 7:28-36 절 =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과 그 자손에게 줄 것.

- 신명기 18:3 절 = 앞 넓적다리위와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게 줄 것

☆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사환을 보내어 고기를 삶은 때에 갈고리를 가지고 냄비나 솥이나 가마나 무조건 찢러 넣어 걸러 나오는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함.

②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취하였습니다.

☆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번제단에서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태워드린 후에야 고기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레 3:3-5, 7:31)

☆ 그런데도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를 저지해도 강제로 원하는 고기를 탈취해 갔습니다!

#### ■ 주목 - 내면적인 죄 (2 차적인 죄)

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규례를 업신여기고, 멸시!, 곧 저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것.

- ② 제사장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하고 업신여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백성들도 제사와 예물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게끔 만들었다는 것.
- ③ 더 나아가 구약 시대에 율법에 따른 제사는 바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는데, 그 제사를 제사장 스스로가 멸시하며 망가뜨림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를 저들이 막아버렸다는 것!

✓ **생각하기 1.**

- ✧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범이 얼마나 공동체와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깨달으며 언제나 교회와 공동체의 신앙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 그리스도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경건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 경건하게 자라나는 사무엘과 엘리의 축복을 받은 한나 (18-21 절)**

**1)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18 절)**

-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제사를 집행할 때 입었던 예복.
-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입은 세마포 에봇은 당시 대제사장이 입었던 성의라기 보다는 그가 어려서부터 대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입었던 예복으로 이해.
- 어떤 학자는 19 절에도 소개되었듯이 어머니 한나가 매년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라올 때, 이 옷을 사무엘을 위해 지어 왔을 것으로 추정 - (다른 학자들은 그 옷은 그저 에봇 안에 입었던 겹옷이라 생각하기도 함).
-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어린 사무엘은 당시 행악하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는 완전히 대비되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엘리 제사장을 도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

✓ **생각하기 2.**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며 살던 사사 시대에 한나는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렸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처럼 아들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사무엘의 신앙성숙을 확인했습니다.

2)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다른 후사를 주시기를 바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 아마도 한나의 변함없는 기도와 순종과 예배자의 삶, 헌신자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한나는 사무엘 외에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낳았습니다.

3. 더욱더 심각한 범죄에 빠지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22-26 절)

1) 제사를 열시한 엘리의 아들들은 이제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도 동침하였습니다.

- 회막문 = 회막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기 보단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회막 앞을 말하고 이는 곧 성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  
(당시 제사장들이 주로 하던 모든 일은 이곳 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수종 드는 여인들 = 출애굽기 38 장 8 절에 보면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이 언급. 곧 제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빨래나 설거지, 청소 등의 일을 맡아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것은 아무리 구약에서 율법적으로 성전제사에서 여인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여인들도 역시 여러모로 성전을 섬기며 제사를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

-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학자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 여인들과 성소에서 동침하였다 주장!  
→ 원문에 ‘회막문에서’란 말은 ‘동침하였다’는 말을 수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

2)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아들들을 강하게 나무랐지만, 저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 엘리 제사장이 힘이 있었을 때도 관리되지 않던 아들들이 늙고 힘 빠진 엘리의 말을 청종할 리는 없었을 것! -> 어릴 때부터 바른 교육 (특히 신앙교육) 은 매우 중요!!
- 특별히 25 절의 엘리의 말에 주목!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 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중재자가 있다! - 그가 바로 제사장!
- ②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중재의 제사를 열시하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정말 엄한 책망을 아들들에게 했다는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 그 이유는 불행히도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

✓ **생각하기 3.**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해야만 한다.

또한 스스로 제사를 멸시하며 돌이킬 길을 없애버린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예배를 등한시하지 말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생각하기 4. 특별히 26 절을 주목!**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제사장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이런 악한 제사장들 밑에서 배우며 함께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들에게서 어린 사무엘이 무슨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더 은총을 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 제사장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 (27-35 절)**

**1) 엘리 제사장을 향한 책망 (27-29 절)**

- 지적: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들을 대표해 거룩한 제사를 주관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조상 아론과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것!
- 두 가지 책망
  - ①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멸시했고, 제사장의 직분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이용하고 남용했다는 것.
  - ② 제사장 엘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들의 죄에 대해 묵인하며 침묵했다는 것. 곧 율법을 엄정하게 지켜야 할 대제사장이 진리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도 모른척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2)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 (30-36 절)**

- ① 허락하신 제사장직에 대한 단절과 함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선포하심. (30 절)
- ②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할 것을 예언케 하심.
  - 노인이 없게 할 것! (31 절)
  - 엘리 가문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될 것! (33 절)
  -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죽게 될 것! (34 절)
  - 그로 인해 엘리의 마음이 슬프게 될 것! (33 절)
- ③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의 환난을 보게 될 것! (32 절)

**3)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을 예언 (35 절)**

■ 충실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인가?

- 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친히 일으키실 제사장
- ②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제사장
- ③ 하나님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실 것이고,
- ④ 그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온전히) 행할 것!

■ 그럼 예언된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

- ① 선지자 사무엘
- ② 솔로몬 때의 세워진 제사장 사독 - (제사장직이 완전히 사독의 집으로 옮겨짐)
- ③ 예수 그리스도

참고: 열왕기상 2:26-27 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와 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와 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5.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